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2월 13일(수)

윤석열 대통령,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

- 국권 회복 및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방문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13, 수) 오후 헤이그 정치 중심지 비넨호프(Binnenhof)에 위치한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방문하였습니다.

* 네덜란드어로 '기사의 전당(Hall of Knights)'이라는 뜻으로, 1280년경 완공되어 오랜 기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는 네덜란드 의회 개회식 등 국가 주요 행사에 사용되고 있음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리더잘을 방문해 1907년 제2차 만국 평화회의와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루터 총리에게 리더잘은 고종 황제가 이상설, 이준, 이위중 3인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을 호소하고자 했던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으로 한국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측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40여 개국 약 300명의 대표단 참석 하에, 군비 통제 및 국제법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면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이후 발생한 제1, 2차 세

계대전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정신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창설로 이어졌고, 헤이그는 평화의 도시로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리더잘 방문 후 인근에 위치한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침대, 고종 황제가 수여한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들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곳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헤이그 특사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고종 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드 용 호텔(De Jong Hotel)에 세워진 기념관 /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가 운영 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준 열사 기념관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열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과 평화를 향한 숭고한 뜻을 알리는 노력을 정부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